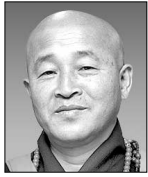


일주문



지관 스님 초청 특강
불교서울신문강당 운영위원장 청화 스님은 7월 7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초청 특강을 연다. (02)2011-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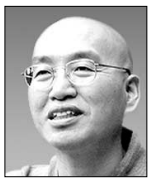
청소년 인권 캠프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7월 29-31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중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 캠프를 마련한다. (02)734-6401



홍련암 복원불사 2차 천일기도
양양 낙산사 주지 정범 스님은 7월 7일 오전 10시 낙산사에서 '홍련암 복원불사 2차 천일기도 입제식'을 봉행한다. (033)672-2447-8



'천년의 만남' 템플스테이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7월 1-2일 경내에서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천년의 만남'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2)381-7970



제12차 역사기행 떠나
좋은벗들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8월 5-13일 고구려 유적지를 찾아 前 연변대 방학봉 교수와 제12차 역사기행을 떠난다. (02)587-8996



제6회 명사초청법회
광주 덕림사 주지 무이 스님은 7월 2일 덕림사 대웅전에서 '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한 먹거리'를 주제로 제6회 명사초청법회를 연다. (062)362-2091



제5회 동식물 영혼천도제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은 7월 8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前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 스님을 초청해 제5회 동식물 영혼천도제를 봉행한다. (033)661-5878



참선명상 수련대회
김포 동산사 주지 법전 스님은 7월 27-31일 강릉 등명해수욕장 수련원에서 '어린이·청소년 참선명상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31)998-8700



정각희 정기총회 및 조찬법회
국회 정각희 이용희 회장은 6월 30일 오전 7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을 초청해 정기총회 및 조찬법회를 봉행한다.



지방선거 당선자 초청 리셉션
부선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은 6월 28일 오후 5시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5·31 지방선거 당선자 초청 리셉션을 개최한다. (051)853-2021

동화사 제25대 주지 허운 스님 진산식 성료



대구 동화사 제25대 주지 허운 스님 진산식이 6월 17일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동화사 조실 진제 등 2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진산식에서 모아진 보시금과 공양미는 경주 동국대병원과 동화사 복지시설인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에 전달됐다. 사진은 허운 스님(왼쪽)이 前 주지 지성 스님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조직 재정비로 '이름값' 할 터'

청와대불자회 새회장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수석

"30여 회원에 불과한 청와대불자회 조직을 재정비해 신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7월부터 청와대불자회의 새 선장으로 나서는 서주석 회장(49·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사진은 청와대불자회의 혁신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전임 김병준 회장이 일을 매우 잘해 줬 부담스럽다"는 서 회장은 "정기법회나 성지순례 등의 기본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는 등 신행복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어머니와 장모님, 아내가 청와대불자회장 취임을 반겼다"며 "가족들의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회원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행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작은 소망을 전했다.

*시간이 나는대로 서울 도선사



와 흥국사, 포천 금강사 등 사찰순례를 하겠다"고 전한 서 회장은 "앞으로 큰스님들께 법명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전문가인 서 회장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팀장을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2003-2006년 2월)으로 재직하다 올 2월부터 통일외교안보수석을 맡고 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민주본 심의 본부장에 명진 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주본) 본부장에 명진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신임본부장 명진 스님은 6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신계사 복원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한편,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내에서 북한통으로 통하는 명진 스님은 2000년 6월 민주본 창립 당시부터 요직을 맡으며 조계종의 대북 교류에 힘을 실었다.

박봉영 기자



부처님 일에 한평생... '정년퇴임이 영광'

35년 조계종 종무원 생활 마감하는 방광일씨

"부처님 가피 덕분에 잘 때가 잘 떠나는 것 같습니다."

6월 26일자로 35년간의 조계종 종무원 생활을 마감한 방광일 종무원(63·법명 보수·사진. 방 종무관은 정년퇴임했던 종무원이 별로 없었던 전례를 거론하며 '정년퇴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마워했다.

방 종무관은 1970년부터 종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종무원이

라고 했잖아 총 6-7명 정도. 열악한 조건에서도 종무행정 체계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종단 사태 과정에서 회의한 적도 많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방 종무원의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스님은 청담 스님과 월산 스님. 특히 청담 스님으로부터는 "출가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방 종무관은 "장가는 가야겠다"며 당시 총무원장인 청담 스님의 권유를 뿌리쳤다. 그러나 '청

담 스님의 권유가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방 종무관은 후배 종무원들에게 "정년퇴임하는 종무원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짜막한 인터뷰를 마친 방 종무관은 장갑을 끼고 근무처인 한국불교전통문화센터 주위의 풀을 뽑으며 총종결음을 했다.

방 종무원의 퇴임식은 6월 30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호법부장 도진 스님 등 전방 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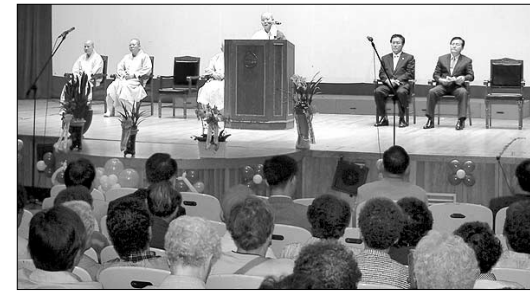
조계종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초청으로 6월 21-22일 경기도 양주 모 부대에서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호법부장 도진 스님을 비롯 30여 조계종 교역직 스님들이 함께 했다. 도진 스님(사진 오른쪽)이 부대장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다.

불교상담원 불교상담기법 수련회



불교상담원(원장 이원주)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광주 관음사에서 불교상담기법 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에서는 불성 개발 프로그램과 감수성 개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이원주 원장은 "참가자들의 관습적인 행동과 아상과 집착 등을 무너뜨리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삼전종합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식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선재)은 6월 21일 1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종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선재 스님 등과 송파구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삼전복지관은 1991년부터 승가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창작21작가회 나눔의집서 시낭송회



창작21작가회(대표 문창길)가 주최한 '나눔의 집 시낭송회'가 6월 17일 오후 3시부터 나눔의 집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나눔의 집 김근자 할머니의 증언과 역사관 견학에 이어 민영정 대구 이승하 시인 등 20여 시인의 시 낭송으로 진행됐다. 가수 진우·진아씨의 음성공양도 곁들여졌다.

부산 울산 경남 불교언론인 한자리에



부산 울산 경남 불교언론인들의 모임인 부울경불교언론인협의회(회장 강호일)는 6월 16일 부산 범어사 주지실에서 모임을 열었다. 언론인협의회는 모임의 계기로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bukbuddha)를 개설했다. 이날 부산불교방송, 현대불교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출간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사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융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풀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팍스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융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사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 과정

-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뜨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린다.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사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발을 줄 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 본원

- 주소: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051)803-5953 / 011-9803-4600

* 계좌번호: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